

번호 01-1

제 목	국문	개원의사의 건강증진에 대한 태도 연구			
	영문	Physicians' attitudes to and involvement in health promotion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배상수 <sup>1</sup> , 권순호 <sup>2</sup> , 이태진 <sup>1</sup> , 어광수 <sup>1</sup> , 김동문 <sup>1</sup> 1)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영문	Sangsoo Bae <sup>1</sup> , Soonho Kwon <sup>2</sup> , Taejin Lee <sup>1</sup> , Kwangsoo Uh <sup>1</sup> , Dongmun Kim <sup>1</sup> 1)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2) Health services research center, Hallym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1년 6월					

1. 연구 목적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차진료의사가 건강증진사업에서 차지하는 잠재적 중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로 이들 의사의 흡연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 개인의 흡연 습관과 금연 권고 실천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정도의 연구밖에 진행된 것이 없다. 건강증진과 관련된 의사의 개인적 행태뿐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천 의지 등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개원의사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1999년 11월 현재 경기도 내에서 개원하고 있는 내과의사 286명과 가정의학과 의사 232명 등 전체 5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과 개원의는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가정의학과 개원의 협의회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차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개원의에게 2차 설문을 보내었는데 총 응답자는 170명(내과91명, 가정의학과 79명)으로 32.8%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에 포함된 변수를 크게 분류하면 개원의사 개인의 연령, 성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음주, 흡연, 운동, 식생활 등 건강증진 관련 행태 변수,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개원의사의 가치관, 환자 진료시 건강증진 실행 여부,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참여 의사 등으로 나뉜다.

수집된 자료들은 변수들 상호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 3. 연구 결과

#### 1) 건강증진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의사는 9.5%에 불과하였다. 개별 건강증진 프로그램별로 보면, 규칙적 혈압관리나 규칙적 혈당관리 등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진 의사는 응답자의 3/4 이상이었으나 알코올 섭취 제한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큰 관심이 있는 의사는 약 35-37% 정도였다.

#### 2) 진료 시 건강증진 실행 여부

40대 이상의 일반 환자들에게 생활개선요법에 대해 어떻게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많은 개원의사들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자세히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원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파악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식생활 습관을 파악하는 의사의 비율이 약 81%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 환자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의사의 비율은 5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원의사가 고혈압 환자에게 약 물요법 이외에 가장 많이 권장하는 생활개선요법으로는 응답자의 94.1%가 운동요법을, 93.5%가 체중조절을, 91.8%가 식이요법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주(66.5%)나 스트레스 관리(70.6%)를 권장하는 개원의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 의사 개인의 건강 행태와 건강증진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연구 대상 개원의사의 30.6%가 흡연을 하며, 41.7%가 음주를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혈압을 거의 재지 않는 의사가 14.1%로 나타났으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의사는 35.5%나 되었다. 개원의사의 흡연 습관에 따라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4)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팜플렛이나 리플렛 등 교육 자료를 제공받아 환자에게 개별 교육을 하겠다'는 의사의 비율(52.9%)이 가장 높았고, '의사 자신이 건강증진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자문으로 활동하겠다'거나(7.1%)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8.2%) 응답은 매우 낮게 나왔다.

### 4. 고찰

우리 나라 개원의사의 경우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시 의사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진료 여건들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에 관여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원의사들에게 건강증진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주고 또한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된다면 향후에 개원의사들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